[가정공동체축제] 부모됨의 도리

[본문: 엡 6:1~4]
짐 그래함 목사 / 1999 / 페이지 수: 4

부모됨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두 가지 책임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부모들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의 구성원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어렵겠지만 점점 자라감에 따라 가족에게 대한 자기의 책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투자하여 가정을 섬겨야 하고 힘을 다해 헌신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족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두번째,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족간에 좋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서로간에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의 감사표현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선 부정적인 것이나 파괴적인 대화보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거나 그저 놔두기보다 직면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에게 영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델을 통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빨리 배우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http://file.cgntv.net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그의 사랑으로 죄를 속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탄생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실 때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자녀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삶과 모든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그를 향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떻게하면 성공하는지 계속하여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실패를 직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삼손도, 요나도, 베드로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부모님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써 이 집회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러지고 깨어진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용서'는 부모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힘주어 말하기는 '아무도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꾸만 정죄감을 가지게 합니다. 사탄은 죄를 확대해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너무 축소를 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로 옮겨 놓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묻어 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떼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죄감과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성령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깨끗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http://file.cgntv.net

네 번째, 의사소통은 우리의 말보다 말의 음색과 태도, 그리고 몸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아도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로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소한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진실성'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헤어스타일인가',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등을 사소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중대사와 사소한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로써 자녀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해 많이 염려한다면 부부로써 자신의 배우자와의 강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기대하는 일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로써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것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친교그룹과 우리의 삶에 조언을 해줄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각자가 자신의 배경에서부터 가지고 온 서로를 어렵게 하는 습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서로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활발히 사역을 해야 합니다. 부부 서로간에 깊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결속력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요소가 됩니다.

일곱 번째, 부모로서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또 깨어나서 울고 재우고 나면 또 울어서 화가 납니다. 자라나서 걸어다닐 때, 자라나서 학교에 다니며 나쁜 말을 배울 때에도, 사춘기가 되어 부모에게 반항할 때도, 청년기가 되어 이상한 철학으로 부모를 당황하게 할 때에도, 부모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부모는 권세를 사용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야 말로 아이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 집니다.

부모는 가정안에서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비판을 받고 자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적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싸움을

http://file.cgntv.net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조롱을 당하고 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창피를 당하면 정죄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래참음을 배우면 참을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면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기에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부모

하나님과 부모가 이어지는 선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짐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놀라운 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로써 배운 몇가지 교훈입니다. 부모야 말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은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축복하시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기 원하고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무너짐과 부족함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

http://file.cgntv.net